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청신호'

지역 문화계 최대 숙원 사업  
옛 신양파크호텔 일대에 건립  
정부,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서  
조사 용역 예산 2억 원 반영



국립공립 무등산 자락의 흥물로 전락한 옛 신양파크호텔(사진) 부지 일대에 현대미술관 광주 분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옛 신양파크 부지 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일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의 흥물로 전락한 옛 신양파크 부지를 활성화하고, 아시아 대표 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해선 반드시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5억원 가운데 2억원을 최종 반영했다. 광주시의 '현대미술관 분관' 정부 예산안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날 일부 용역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옛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총사업비 800여억원을 들여 세계적 수준의 '현대미술관 광주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호남권 수장고 기능과 함께 미디어 아트·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미술 작품을 복합 전시하는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키워내겠다는 구상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1995년부터 14회째 이어진 비엔날레와 2014년 지정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에 걸맞은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미술관 분관 건립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월 광주비엔날레와 지난달 10일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주관한 김건희 여사에게 미술관 분관 건립 필요성과 문화체

육관광부의 지원을 적극 건의했으며, 대통령실에서도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행을 위해 광주 등 비수도권 내 문화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현대미술관 분관은 덕수궁을 비롯한 서울 종로구, 과천, 청주 등 4곳뿐이며, 오는 2025년 '대전관'만 개관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광주시는 현대미술관 분관이 들어서면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문화 중심 도시 광주'를 견인하는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계에선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인 광주에서 미술관 자료 등 유네스코 자산을 결합한 아카이브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미디어 아트 허브 도시 조성'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활용 방향이 명확해진다는 점도 광주시 입장에선 반길 만한 대목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10월 신양파크호텔(부지면적 4만 993㎡·건축물 1만 5682㎡)이 폐업한 자리에 호화 주택단지 건립이 추진되자,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369억원(3년 분납)을 들여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한 뒤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위 소속인 이병훈 국회의원(민주·광주 동남구)은 "아시아문화전당은 복합전시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시·교육 등은 가능했지만, 자료 보관(아카이빙·Archiving) 기능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현대미술관 분관이 생기면 자료 보관 기능을 기본으로 미디어아트 분야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부동산중개업소들 수수료 못든 요구 ▶6면
- 굿모닝 예향 - 소설가 김탁환 ▶19면
- KIA 오기나와 캠프 - 이우성 1루수 변신 ▶22면



##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2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창사 7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경력기자 0명	2차 심층면접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11월 21일(화)~12월 4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12월 6일(수) 개별통보
심층면접	12월 11일(월)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2일(화)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수습기자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1장 이내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경력기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개인정보 비밀 보장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E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 합참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하라"

###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합참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

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또다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www.jepa.kr

## 전남 경진원이 중소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여 활기 넘치는 전라남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시설 투자금 장기·저리대출 및 운영자금의 이차지원
- 구인·구직 매칭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 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전시박람회 지원
-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을 위한 컨설팅·교육지원

대표 번호 (본원) : 061-288-3800  
일자리 플랫폼 : 061-750-7700